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10원 상승한 1,384.90원에 마감
-------------	------------------------------

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2.10원 상승한 1,384.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20원 상승한 1,384.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분위기에 오전장중 고점(1,387.3원)을 기록했다. 이후 주요 재료 부재 속 환율 오름세가 진정되었고 미 6월 소매판매 지표를 대기하면서 1,384.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3.5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84.00	1387.30	1382.20	1385.00	1386.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74.88	876.71	871.58	874.5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506.74	1511.08	1505.03	1509.2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14	-6.27	-13.79	-27.38
	결제환율(수입)	-0.9	-5.41	-12.11	-2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금리인하 기대 지속에...1,3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4.90) 대비 1.4원 하락한 1,38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소매판매 호조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속에 따른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6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에 그치며 당초 예상치였던 0.3% 감소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지표 발표 이후 달러화는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지속되자 상승폭을 축소하며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확률은 100%이며 연말까지 3회 이상의 인하 확률은 60.8%로 반영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9월 인하 가능성에 연동되어 장단기

물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이에 더해 뉴욕 증시 상승세 등 위험선호 분위기가 지속되는 점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트럼프의 11월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입장 표명 및 위안화 약세 심화 등은 환율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9.00 ~ 1387.0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96.04 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40원 ↓■ 美 다우지수 : 40954.48, +742.76p(+1.85%)■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5.55 억달러■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8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